

완주군,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높은 청렴도 · 교통복지 · 로컬푸드 확대 등 인정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제8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6일 완주군은 내일신문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제8회 다산목민대상과 관련,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 수상단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산목민대상은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1차 서류, 2차 현장 및 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완주군은 윤기(律記),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3가지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4~2015년 지방자치 경쟁력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의 외부기관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윤진음(尹) 승격, 혁신도시 민원센터 개소, 군민소통 및 교육지원 전담기구 설치, 공무원 정책 동아리 활성화, 공직자 아침복서운동(복복님) 추진 등의 행정효율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교통복지 1번지 도약, 로컬푸드 진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착, 일자리 대상 전국 1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애민(愛民)을 구현한 것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중 행정부 선정 5대 우수정책 사례로 500원 으뜸택시를 비롯해 시내 버스 요금단일화, 수요응답형 콜버스, 통학택시, 장애인 콜택시, 안심택시 등 일련의 시책은 '교통이 복지다'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농업융성 프로젝트 추진, 귀농귀촌 확충 등으로 '농도파' 완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과 아파트 르네상스 전곡에서 2번째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선정, 맞춤형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생활 문화 및 체육 기반 확충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애민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와함께 완주군은 붕공 분야에서 군수 관사의 주민소통공간 활용, 최초의 소통활성화 조례 제정 및 소통공간 단 운영이 중심이 된 생활밀착형 소통행정 등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소통 변화, 열정을 통해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그간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고, 이번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선정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번 대통령상 선정을 더 잘하려는 체적으로 알고 앞으로 전곡에서 으뜸가는 완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군은 반디랜드 내 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목성 특별 관측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주서 즐기는 별자리 여행

군, 30일까지 반디별천문과학관 운영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군이 반디랜드 내 반디별천문과학관(설천면 무설로 1324)에서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13:00~21:00)는 천문과학관 2층 전시실에서 망원경 관람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측된 다양한 목성 사진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사진전이 개최되며 매주 금요일(22:00~24:00)에는 선착순 20명에 한해 목성 특별 관측회 "목성이 놀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관계자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반디랜드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보고, 듣고, 직접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신비로운 과학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은 건축연면적 752.47㎡에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영상실, 관측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800mm 주광원경과 200mm 태양망원경을 이용해 태양을 비롯한 행성과 성운 상단 등의 천체와 인공위성 관측이 가능하다.

"목성이 놀자"는 천문과학관 주관측실에서 진행되며 목성과 관련한 강연과 관측 스마트폰을 활용한 목성 촬영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우천 시에는 목성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관측박물관 로비에서 분광기 만들기과 별자리판 만들기, 목성모형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공작 재료비는 건 당 2천 원이다.

4월 16일(토)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관측박물관 로비에서 이틀 동안 2천 여 종, 13,500여 마리의 희귀곤충표본과 150여 종의 열대식물, 그리고 수천마리의 나비들을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 현장 '어망'

안전관리 · 감독 소홀

비산먼지 방지 부실

<속보>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안전관리 미흡(본지 6일자 9면)에 이어 세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억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의 부실 관리로 대기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를 방관 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완주군에서 발주한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완주군 봉진면 간중리에서 상운리 소양천 합류점까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공사로 오는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완주군 용진면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비산먼지(소음진동)발생 안내판에는 비산먼지(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서 방지(억제)시설의 설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시 돼 있으며 세류시설, 이동식 고압살수기, 환경당량 요원 등을 배치 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판에는 달리 어떠한 방지시설도 돼 있지 않았다.

부는 폐포 등에 침착·축적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세류 시설을 설치해 차량 이동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 출입구에 세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최근의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차량들의 진 · 출입시 비산먼지 발생의 우려도 당당히 커지고 있다.

인근에는 민가와 집 담 등이 다수 존재해 마을주민들의 건강 및 농작물의 성장저해가 우려돼 관계기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김리단 관계자는 "세류기는 지난해 착공한 1차 공사구간에 설치 돼 있으며 토사 반출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세류기는 이동식이라 새로운 현장에 이동 설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비산먼지 배출에 관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지역농업 실태분석' 책자 발간

전북연구원 · 농진청 자료분석 농가별 맞춤형 지도사업 기대

무주군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5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역농업 전수조사 통계를 토대로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지역농업 실태분석" 책자는 농촌진흥청이 "지역농업개발 계획 수립 분석모형 개발과 지역사태 연구" 진행 결과를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지역농업과 영농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된 것으로 전북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이 무주군 농가와 재배, 생산, 경영 출하 소득 등을 집중 분석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농업생산과 농업경영, 산지유통, 농산업, 지역농정을 영역으로 하는 무주농업이 지난 7년 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구조 분석한 내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임영택 소장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농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약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조사결과를 무주농업발전과 농가별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 농업 · 농촌 ·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지역농업 전수조사 결

과에 나타난 무주군 전체 재배면적은 3,281.5ha로 농가당 재배면적은 0.82ha며 원예작목이 1,532ha를 차지하고 식량, 특용, 사료작물, 화훼 · 조경수순이다.

또한 전체 생산액은 약 973억 원으로 농가당 평균 2,4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당 평균 농업생산액이 높은 작목은 배(4,241만 원), 과실류, 과채류, 약용작물 순이다.

축산을 제외한 농업경영비는 약 414억 원이며 농가당 평균 1,02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주군 농산물은 작가래 방식을 통한 판매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전체 농업소득 규모는 약 500억 원, 농가당 평균은 1,388만 원 정도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산림조합,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추진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혜석)은 지난 5월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 사업지내인 용담면 송골리 방화산촌생태마을에서 전혜석 조합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석하여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행사를 추진했다.

2014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든 숲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리의 영세성과 입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지화하여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로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무림 경영 활성화 단지 조성 사업이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과 연계해 산림청에서는 산림관련 기관과 산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촌 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창조경제 대상

친환경 경영 부문

이항로 진안군수는 6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지방개발위원회가 후원한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경영 부문'에서 2015년에 이어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모범사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친환경 제철제 전연 도입
진안군은 전북권과 충청권역 160만명이 식수로 이용하는 용담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지방개발위원회가 후원한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경영 부문'에서 2015년에 이어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평소 이 군수는 청정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신념으로 친환경 분야를 최고의 지표로 삼아 모든 정책을 청정환경 실현에 맞춰 추진하면서 주민과 행정이 공생하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는 실천하는 모범 CEO로 높이 평가되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확대
용담호 상류지역을 생명농업 지구로 지정하고 벼 재배 농경지에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도입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

-쓰레기 3NO 운동 실천
3NO 운동은 주민주도형 청정환경지킴이 운동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안 태우고 안 버리고, 안 묻는 활동을 펼쳐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등을 거뒀을인 판매 수익금으로 장학금 전달과 경로잔치를 열어 환경도 지키고 주민협업과 친화의

지속가능한 환경 지키기 실천기반 마련
진안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지키기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08개 전체 마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거점별 폐비닐 집하장 농약용기수거함, 청소차량 확대, 종이팩 친환경 화장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로컬푸드리노

완주 송광사 벚꽃길 이변주 절정

완주군 소양면이 화사한 봄꽃으로 뒤덮이는 계절이 돌아왔다.

전주시와 인접하고 완주 순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소양면 송광사 벚꽃길은 40년생 왕벚나무가 도로 양쪽에 드리워져 화사한 벚꽃타원을 이룬에 따라 해마다 10,000여명의 상춘객이 찾아 정도로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올해 벚꽃축제는 개화시기에 맞춰 열흘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주 주말이면 벚꽃이 만개하여 화려한 벚꽃타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광사 벚꽃길에 위치한 미수마을은 장기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40여점의 벽화와 LED조형물을 이용한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벚꽃 길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의료원 아토피케어교실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토피 케어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의료원은 6일 3남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비염 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자연요법 전문강사로부터 자연순리에 근접한 생활환경과 음식으로 아토피 다스리기를 주제로 한 강좌에 이어 아토피스킨로션, 천연샴푸, 천연비누, 모기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등 아토피케어 제품을 만들기 체험교실이 운영돼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보건의료원은 오는 5월 18일까지 관내 아토피·천식·비염 환자 및 학생,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등 우선 신청자 7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용품 만들기 체험교실과 아토피예방관리 강좌를 각각 5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원은 관내 보건진소 6개소에서 아토피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장수=교관호 기자

장수경찰, 무궁화 꽃 심어

장수경찰서는 5일 오전 제7회 식목일을 맞이해 경찰서 화단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계장 등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날 식수행사에서는 50년생 무궁화를 경찰서 화단에 식재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꽃심었다 꽃피게'라는 기념 포지션을 함께 제작해 국립경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인 무궁화를 통해 장수경찰서 직원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무궁화 기념식수 후 청사 내 사파나무와 소나무 등 정원수에 거름주기과 주차장 주변 청소 등을 실시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진안군, 농산물 GAP교육 실시

진안군은 진안마이산조합공동사업인과 합동으로 6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수박, 사과, 영지버섯 재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에서 286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1회에 누락된 사과 농가를 포함하여 수박, 영지버섯 재배농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마다 2시간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우수관리(GAP)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민 기자